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7 세광교회 단기선교

일시: 2017 년 2 월 20 일-24 일 (월-금)
장소: 혼두라스 랩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사역: 의료 및 전도, 어린이 사역
여름의류를 Donation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두라스 단기선교를 위한 "Paint Day"

일시: 2 월 18 일(토) 오후 1 시
장소: 세광교회 1 층 친교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2017 년 2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승택 집사/시편 119:1-8
이번 주 친교: 송은혜/최경자 집사
다음 주 친교: 백희진/황인선 사모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2월 5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31 장(통 46 장)
다함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2 편

이영순 권사 찬양(Choir) “허락하신
새 땅에”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행 20:24; 갈 4:19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1. 29. 주일설교 요약

이기신 어린양

4 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께 대한 경배를 그리고 있다면, 5 장에서는 구속주이신 예수그리스도와 그분께 대한 예배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좌와 생물, 장로들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양 예수께 수천수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경배드리는 하늘의 예배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구속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돌아본 요한의 눈에는 능력의 사자 대신에 죽임을 당한 상처가 남아있는 어린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원수의 핍박이 극심할 때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고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인자와 같은 이”(단 7 장)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기신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죽임 당한 약한 어린양이 승리자입니까? 그 놀라운 역설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실재가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신 승리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온전한 마음을 입었습니다(사 53:5-6).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의 피로 살림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죽어있는 것 말고 살아있는 상태가 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 죽어있는 상태를 살인줄 아는 것입니다. 살려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예수가 죽어서까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살고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살아도 죽은 것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사실은 죽음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엄마를 보고나면 혼자 애써 참았던 고통이 느껴지며 비로소 눈물이 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끔찍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당한 고통은 바로 그 고통입니다. 아파할 줄도 모르던 우리를 대신해 아프셨습니다. 죽은 줄도 모르던 우리를 대신에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소망도 하지 못하던 우리를 대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음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옛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예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양이시고, 죽임을 당한 상처를 여태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드릴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 두루마리에 쓰여진 완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인봉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고난 당하셔서, 죄의 댓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가장 영광스런 승리였습니다. 모든 천사와 피조물이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의 증거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뿐 아니라 그의 권세와 능력을 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다음 주일(2/12) 설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갈 1:1-10)